국내 IT기업의 재무적 특성과 비교

실사구시

00. 문제인식

IT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에 바탕을 둠 -> 수요, 기술 측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 따름

기술,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 IT기업이 성공 -> 시장우위를 획득하여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

IT기업은 일반적으로 기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기업의 매출액대비 R&D 투자비율이 높고, 창조성이 성공에 중요한 요소가 됨. 이러한 여러 특징들로 IT기업의 경우 기존의 기업들과는 다른 현금흐름구조와 위험구조를 가지고 있음. 또한 Life Cycle의 수명이 짧아 기업의 M&A나 청산 등을 위한 기업가치 평가의 필요성이 폭증하고 있음

① **IT기업, 타기업 비교 -> IT기업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IT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함**

② **재무적 특성을 통해 국내 IT기업들의 가치와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함**

01. 데이터 전처리

- NICE 평가정보 KISVALUE 데이터 사용
- IT기업 데이터 (197개 기업)
  - KIS-IC 분류 :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
  - KSIC-9 분류 :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/ 정보서비스업
- 비IT기업 데이터 (769개 기업)
  - KIS 분류 : 비금융업 (IT기업 데이터와 중복되는 것 삭제)

유동성	유동비율 당좌비율 순운전자본/총자본비율
활동성	순운전자본회전율 경영자본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매출채권회수기간(일)
성장성	총자산증가율 자기자본증가율 매출액증가율

수익성	자기자본순이익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
안전성	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자기자본회전율
노동생산성	노동장비율(종업원1인당) 자본집약도(종업원1인당)

- IT기업과 비IT기업의 각 지표에 해당하는 재무비율을 가져옴
- (이상치 제거) 유동비율, 당좌비율, 부채비율 등이 매우 높은 기업은 제거함
- 이상치 제거 후 IT기업과 비IT기업의 **비교**를 위해 **각각의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**을 구함

변수	기업 이름 설립일 연도 성장성 증가율 증가율 합계

- 2010 ~ 2015년 데이터
- 연도에 따라 IT기업간의 성장성 추이를 비교하기 위해 **연도별 증가율**과 **증가율의 총합계**를 구함

02. 데이터 탐색

❶ IT기업과 비IT기업 비교

- 재무비율 비교
- 이상치를 통한 IT기업의 역동성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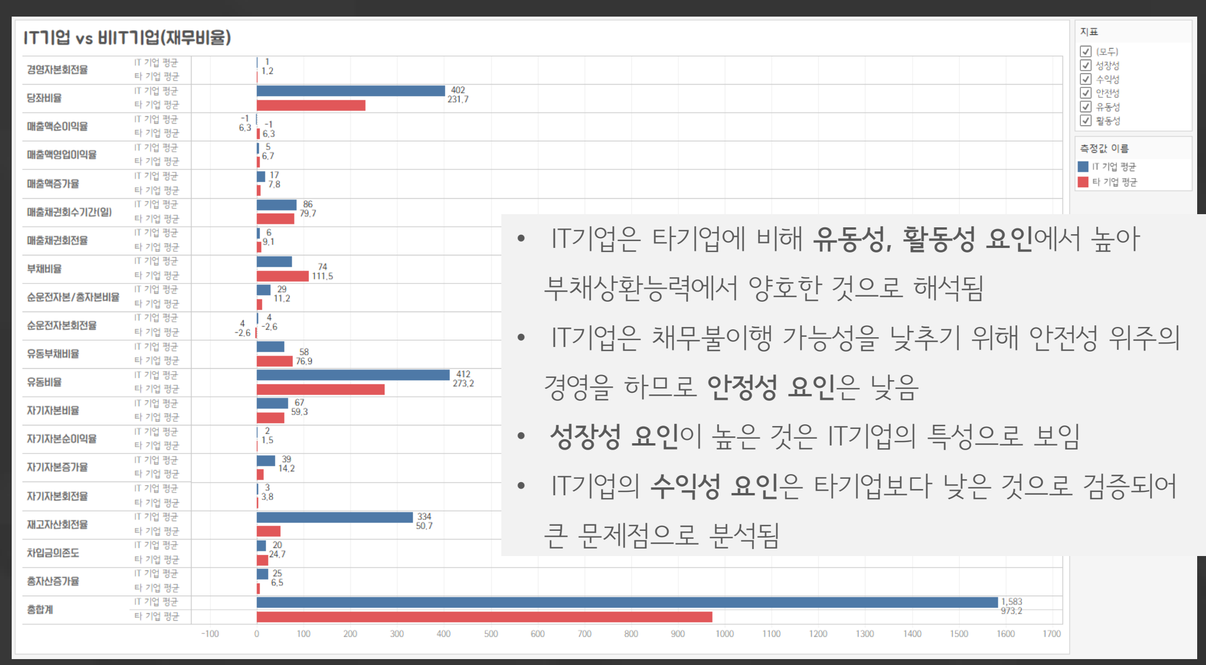
❷ IT기업간 비교

- 기업 규모 비교(100명 이상 대기업)
- 2015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비교, KSI 신용평점 비교
- 2015년 성장성 비교, 노동생산성 비교
- 설립일 기준 2010 ~ 2015년 성장성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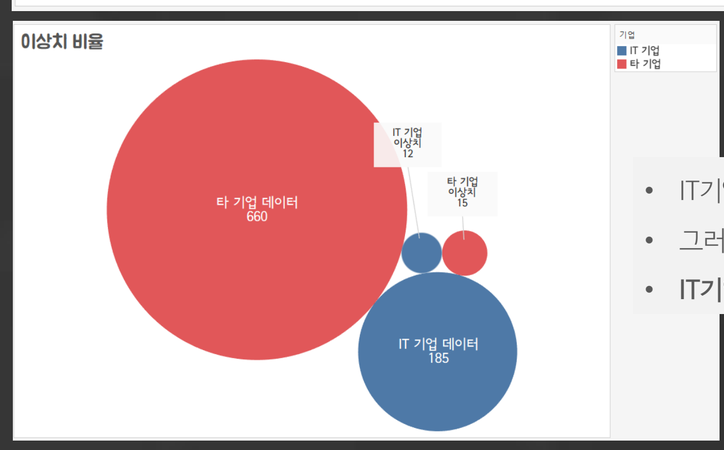
번외 IT기업 대표자 정보

03. 결과

❶ IT기업과 비IT기업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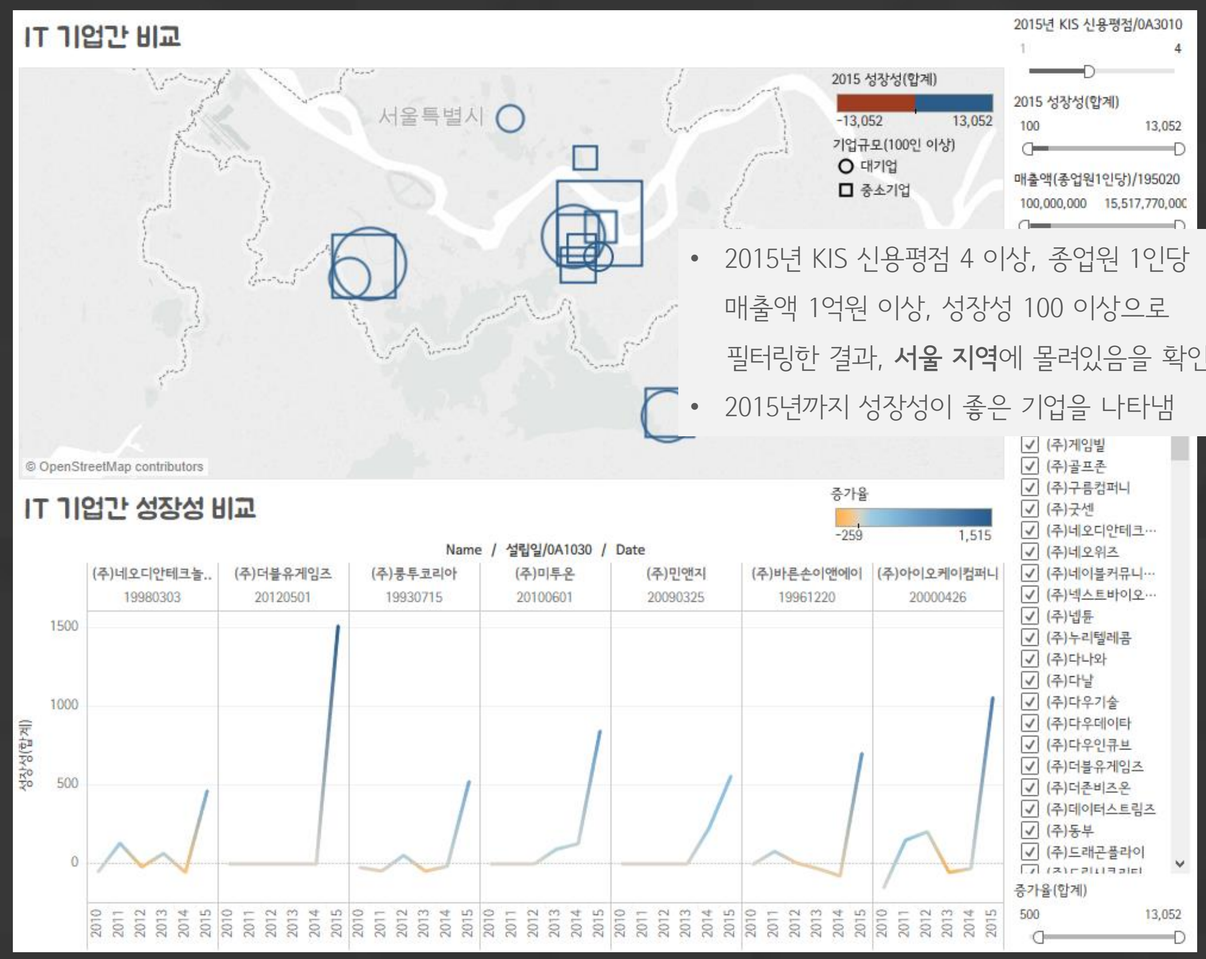


- IT기업은 타기업에 비해 **유동성, 활동성 요인**에서 높아 부채상환능력에서 양호한 것으로 해석됨
- IT기업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안전성 위주의 경영을 하므로 **안정성 요인**은 낮음
- **성장성 요인**이 높은 것은 IT기업의 특성으로 보임
- IT기업의 **수익성 요인**은 타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검증되어 큰 문제점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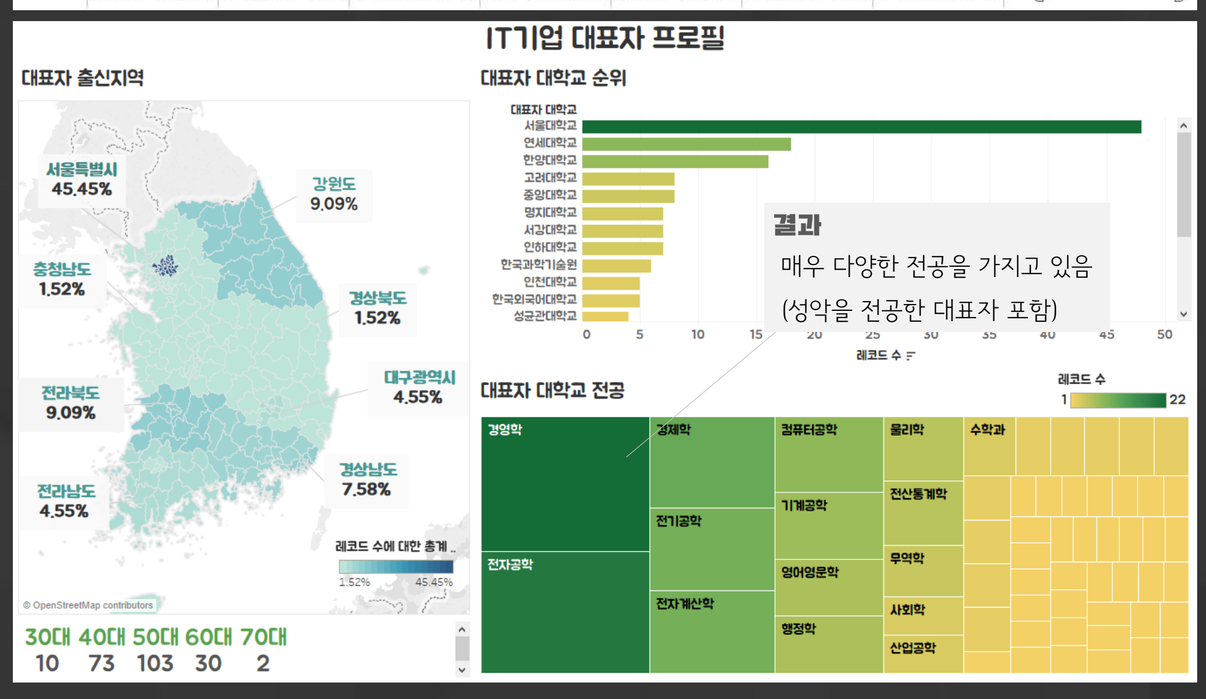


- IT기업과 타기업의 총 데이터 수 차이가 큼
- 그러나 이상치 데이터 수는 비슷함
- **IT기업의 역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**

❷ IT기업간 비교



- 2015년 KIS 신용평점 4 이상, 종업원 1인당 매출액 1억원 이상, 성장성 100 이상으로 필터링한 결과, **서울 지역**에 몰려있음을 확인
- 2015년까지 성장성이 좋은 기업을 나타냄



04. 한계점, 향후 과제

- IT기업은 재무적 변수보다 **비재무적 변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음**
  사장의 경영능력, 종업원의 지적 수준, 기업의 기술력, 시장성, 대표자의 주식 지분율, 기업 웹 페이지 방문자 수 등
- 특히 IT기업 간 성장성을 비교한 후 실제 추이를 확인해본 결과 성장성이 좋더라도 최근 성장성이 좋지 않은 결과가 많아 재무비율만으로 성장성을 가늠하기엔 부족하였음